



月刊 5
2008년 5월 1일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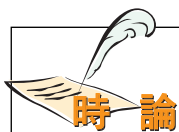
발행·편집인 趙昌化 인쇄인 朴선영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 02)732-4797
02)2001-7621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E-mail kjc1405@hanmail.net Fax 02)730-1270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SINCE 1977 - 원로 언론인들의 열린 광장 / www.kjclub.or.kr

제 266호



全국민 '정치 9단' 시대



이 상 우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

18대 총선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리잡혔음을 국내외에 과시한 성공적인 선거였다. 투표·개표 과정에서 잡음도 하나 없었고, 국민 모두가 합법적으로 진행된 선거의 결과에 승복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국가라고 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었다. 1948년의 제헌국회부터 지켜 보아온 사람으로, 그리고 1960년에 부정선거 규탄 데모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다. 국민이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일정 기간 국가를 관리할 사람을 선택하는 정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민의 성숙도로 성패를 가름하게 된다. 국민 중에서 자기 행위의 의미를 알고 자기 선택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시민'이라 한다. 국민 중에 반 이상이 시민인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 서구 선진국에서 민주주의가 잘 되어 가는 것은 바로 시민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

정당이 정치의 핵심인데 한국의 정당을 이끄는 정치인들의 수준은 '군중'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당이란 정치이념과 국가경영의 비전을 같이하는 시민들의 집단이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당을 믿고,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 이번 총선에서 찍을 후보가 없어 투표를 포기한 시민이 국민의 반에 이른다는 것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여야 정당 모두 공천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정당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파벌싸움을 한 결과 투표자가 찍을 후보를 내어놓지 못하는 희한한 사태를 빚은 것이다. 평생 특정 정당을 지켜오면서 그 정당의 비전을 다듬어 내어온 원로들을 모두 배제시키고 이름도 성도 모를 풋내기를 공천해놓고 유권자에게 무조건 표를 찍어 달라고 내미는 오만불손한 정당들에 민주시민들은 분노했다.

한국과 비슷한 경로를 밟아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애써 왔던 대만의 총통선거를 현지에 가서 참관했다. 부러웠다. 대만 시민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도 부러웠지만 정당의 짜임새와 정당 지도자들의 수준 높은 정치 감각,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의식에 감탄했다. 대만인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8년간의 '진보실험'을 선거로 청산했다.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후보가 전국적으로 고른 승리로 당선되었고 국민당이 의회 의석의 4분의 3을 차지했

4·9총선 최대 승자는 성숙한 '시민의식' '군중영합' 뿌리치고 '민주주의' 토대 굳혀

지하기 때문이다. 후진국, 신생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시민이 몇 안 되고 군중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시민 의식을 갖추지 못한 군중으로 머물러 있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는 '대중영합주의(populism)'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군중은 눈앞의 이익을 볼 줄 알아도 나라의 전체적인 형편을 살필 줄 모른다. 시민은 주권자로서 국가의 안위, 국가 전체의 발전 등을 걱정하나, 군중은 자기와 자기 집단 자기 지역 이익을 앞세우고 나라 전체의 운명에는 눈을 감는다. 이런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이 군중을 선동하여 표를 모아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된다. 그 결과로 나라는 망든다.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대중영합주의로 정권을 장악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물며 한국 사회를 혼란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10년을 청산할 수 있도록 '투표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었다. 이번 총선에서 대표적 대중영합주의 정치인들을 거의 전부 탈락시킨 것은 한국 시민의 정치적 성숙성을 보여준 쾌거였다.

한국의 성숙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반해 한국 정치인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을 좇아가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간접민주주의에서는

다. 여당에서 야당이 된 민진당은 지난 8년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새 국민당 정부의 앞날을 축복하고 협력을 선언했다. 한 때 대만보다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앞섰다고 생각했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처량하게 보였다.

지도자는 지도를 받는 사람보다 식견이나 안목에서 앞서야 한다. 모자라는 사람이 더 잘난 사람을 지도할 수는 없다. 한국의 시민 수준이 이 만큼 높아졌다면 이런 시민을 이끌 대통령, 국회의원은 월등히 앞서야 한다.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의 자질이 모자란다면 누가 말리기 전에 자기가 삼가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삼갈 줄 모르는 무자격의 의원들로 국회를 구성해놓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특히 비례대표 공천은 한심했다. 비례대표제도는 국정운영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국정방향을 바로 잡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이번 선거에서 각 당이 내어놓은 비례대표 후보들을 훑어보면 어느 정당도 나라 걱정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파당싸움에 이용하려는 얕은 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총선은 시민의 승리였고 정치인과 정당의 패배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시민이 구했고 정치인들이 버려놓았다. 그래서 반만의 성공이 되었다. [K]

클릭! 이 한마디

▶ "우리 도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고기를 먹고 있다. (협상타결로)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게 된다." <4월 21일 MB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해>

▶ "2006년 전당대회에서 박 전 대표가 나를 밀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오 최고위원을 밀었는데 내가 이겼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니냐? (후보 경선 때)내가 겉으로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친박'이었는데 박 전 대표가 그걸 몰라주니 답답하다." <4월 17일 강재섭 대표 대구 기자간담회>

▶ "계파정치를 할 것이라며 (나를) 못믿겠다고 한다면, 내가 이번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을 테니까 그 분들을 전부 복당시켜 주기 바란다." <4월 25일 박근혜 의원 '친박연대' 당선자 복당을 촉구하며>

▶ "(특별당비) 10억원, 15억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받은 게 아니라 당비가 없으니 양씨 어머니에게서 차입해서 썼다." <4월 21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 "절가락 하나 더 놓자고 불평하는 게 아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 <4월 24일 이회창 대표 청와대 초청서 제외된데 대해>

▶ "총선 날 이재오, 이방호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 <4월 16일 YS 친박연대 당선자들 만나>

▶ "대북정책은 햇볕정책 외에 대안이 없다. 부시 대통령도 대안이 없자 다시 6자회담에 나서고 있다." <4월 15일 DJ 방미 인터뷰>

▶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아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날의 허물은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4월 22일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 퇴진성명>

▶ "내가 저지른 일을 나 역시 용서할 수가 없다. 나를 용서하지 말아달라." <4월 24일 영화배우 최민수 70대 노인 폭행사건 사과>

CONTENTS · 이 달의 大韓言論

Column

- 溫故知新 - '어른'이 '미래'다 ③
- 大言直言 - "신문법, 法 맞나" ④

Issue

- "눈에는 눈..." 核에는? ⑦

Tour & Festival

- 老기자들 계룡대를 '취재' 하다 ⑧
- 가정의 달 - 지역축제 ⑨

Memory

- 영원한 언론인 故 이동욱 선생 ⑬

500만의 물결! 500만의 혁명! SHOW



이제 대한민국은 SHOW 500만 시대!

400만 돌파 한 달만에 500만 돌파는

대한민국 SHOW의 쾌거를 넘어

전 세계 WCDMA 혁명의 쾌거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SHOW하는 그 날까지

SHOW의 혁명은 계속됩니다!



溫故知新

‘어른’이 ‘미래’다

70년대 초 터키의 북동부 지역에서 설형문자가 새겨진 다량의 점토관이 발견되었다. 관독결과 기원전 4000년경에 융성했던 히타이트 제국의 원로원 회의록임이 밝혀졌다. 관독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흥미롭다. ‘요즘의 젊은이들 버릇이 없어서 장래가 걱정된다’ 였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6000년 전에도 원로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였다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이든 젊은이들의 버릇장머리는 항상 어른들을 고민케 했는가 보다. 버릇없던 젊은이가 어른이 되면 또 젊은이의 버릇을 걱정해야 하는 되돌기가 연년세세 이어져 왔다니, 그래도 세상은 망하지 않고 제몫을 채우면서 발전해왔다니 경이로울 뿐이다.

역사가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의 버릇장머리를 모른 채 눈감고 있어도 세월의 약발을 받아 자연치유되리라고 안도하는 것은 엄청난 오산이다. 젊은이의 버릇없음은 결코 세월과 자연치유로 교정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히타이트제국 원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과 정력을 쏟는 관심이 항상 뒤따라야 가능하다.



최 병 요

- 본회 논설위원
- 한국경제 편집위원
- 한국통신 하이텔경영지원본부장

우리는 흔히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지만 어른들의 자기기만이고 핑계하려는 구실에 다름 아니다.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미래를 가꾸어주는 책임은 어른에게 달려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집트와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 당나라와 로마제국의 흥성이 장구했던 것은 원로들의 지혜와 술선수범 그리고 주인 의식이 밑거름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른을 존경하고 원로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것은 미래를 과거의 역사에서 확인하는 지혜로운 모습의 단면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어른들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고 또 의기소침해 있다. 국가의 노인정

책이 건강문제와 생계지원에 치우쳐있을 뿐 가장 큰 타격인 소외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안에서조차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좋은’ 정도의 대접이 고작이어서다. 어른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이 국가의 훌륭한 자원이며 불확실한 미래의 확실한 열쇠임을 외면한 채 오기와 독심과 배짱, 신명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물론 어른 당사자의 무기력과 아집이 자초한 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미래의 설계에 참여시킨 으레 지난날의 가난과 역경을 설파하느라 시간을 소비하고, 젊은이의 기발한 창의력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허무맹랑하다며 핀잔하고, 술 냄새 담배 냄새 노인 냄새를 피하려는 젊은이에게 무시한다며 역정을 내고, 사소한 일에도 빠치고 고집부리고 비아냥거리고 목청을 높이는 것이 기피와 냉대의 원인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굼뜨더라도 의연하게, 손을 내밀 때 겸허하게, 필요할 때 적극 동참하는 열정으로 사표의 가치를 측량토록 하는 것이 이 시대 어른들의 제일 화두다.

절제 있는 가정, 질서 있는 사회, 품격 있는 나라를 실현해 나가려면 어른을 대접하고 원로를 두려워하여 그분들의 명철을 귀담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명약은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즈음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더욱 그렇다.㉞

‘광복 60주년과 언론의 역할’ 세미나

6·25 전·후의 시대상황과 언론 발자취 점검

◇ 제 1주제=건국 초기과정 ◇ 제 2주제=민주화 · 산업화

국민통합·민족통일 등 지향점 모색이 과제



사회 : 문 명 호
본회 부회장

대한언론인회 주최
5월 19일 프레스센터

건국 60주년을 맞아 우리 나라 언론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국민통합·민족통일 등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언론인회(회장 조창화)는 ‘광복 60주년과 언론의 역할’을 조명해보는 세미나를 5월 19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

언론학자와 전·현직 언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세미나에는 ‘건국 초기 과정에서의 언론 역할’이라는 제 1주제와 ‘민주화·산업화 과정에서의 언론 역할’이라는 제 2주제로 나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회는 문명호 본회 부회장(전 문화일보 논설주간)이 맡는다.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될 이 세미나에 본회 회우는 물론 사회단체 관계자

및 언론학전공 대학생 등 일반인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

주제별 내용과 발표자,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제 1주제= ‘건국초기 과정에서의 언론 역할’

1945년 8월 15일 광복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6·25전쟁 발발 때까지의 좌·우익 대립 등 정치·사회적인 혼란기였던 해방공간 5년의 언론상황을 짚어본다. (발표자 : 정진석 한국의국어대 명예교수 ·토론자 : 김영석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남찬순 순천향대 교수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제 2주제= 민주화 · 산업화 과정에서의 언론 역할’

1950년 6·25전쟁 이후의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보고 특히 5·16군사정변 이후 언론의 시련과 투쟁 등을 점검한다. (발표자 :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 · 세종대 석좌교수 ·토론자 : 박명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구종서 한국문명사연구소 소장)

제 1주제 발표자



정 진 석
외국어대 명예교수

토론자



김 영 석
연세대 교수



남 찬 순
순천향대 교수

제 2주제 발표자



남 시 욱
전 문화일보 사장

토론자



박 명 진
서울대 교수



구 종 서
한국문명사연구소장

言 論 街

세계일보 윤정로 사장 취임



세계일보 제 11대 사장에 윤정로(58·尹鼎老)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한국 회장이 4월 21일 취임했다. 윤 신임 사장은 청운대를 나와 선문대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재단법인 선문학원 부이사장과 피스컵코리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신임 사장은 2007년 8월부터 평화통일가정당 부총재 및 사무총장을 지냈다.

KBS노조, 정 사장 퇴진 본격 압박

KBS의 두 노동조합이 4월 22일 나란히 정연주 사

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방송구조 개편 대응 등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노조는 “공영방송의 운명이 걸린 선택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KBS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KBS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은 정 사장 퇴진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비대위 출범과 함께 ‘정연주 사장 퇴진 촉구와 낙하산 사장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50분에는 부장급 이상 관리직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KBS 공영방송노조가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太平漫評

沈 載 福 본회회무



왕대못으로 박으시구랴...

大言直言

“신문법, 그거 法 맞나”



정 윤 종

- 본회 회우
- 경향신문 논설위원
- 시사문제연구소 소장(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악법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로서 새삼스럽게 재론할 여지도 없다. 한국에서 이 법이 윤곽을 드러내자 세계신문협회(WAN)와 국제언론인협회(IPJ) 등 권위있는 국제 언론단체들은 즉각 언론 자유의 본질을 크게 훼손한 비민주적 법률(악법)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던 일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제 52회 신문의 날 축하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신문법은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신문을 겨냥한 ‘표적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새 정

있다. 결국 헌재(憲裁)는 시장점유율 합계 60% 이상인 3개 신문사를 독점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17조) 등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이들 신문에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규정한 이 법의 34조 2항 2호도 위헌으로 판정했다. 헌재는 “일반 사업자는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 75%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에 비하면 신문 사업자의 평등권이 침해됐고, 독자의 선호도가 높아 발행 부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국제청 조사와는 별도로 신문사 경영 자료를 신문발전위에 중복 신고토록 의무화한 것은 언론을 시시콜콜 옥상 옥으로 간섭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렇듯 동기가 불순했고 부분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은 이 법을 더 이상 존속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다른 헌법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이런 신문법을 폐기하기보다 부분 개정할 것을 주장하지만 위헌조항으로 가득 찬 이 법은

악법은 땀질보다 깨끗이 버리는게 정답 언론중재법도 규제조항 대수술 나설 때

부가 기자실을 복원하고 있듯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도 올해 안에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제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 구속력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하면 실용주의적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즉각 폐기처분하거나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절차를 서둘러야 할 때다.

문제의 신문법은 이른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허울 좋은 미사여구로 포장돼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론의 자유와 기능을 억압하기 위한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자가 많은 신문사를 규제하겠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여론 독과점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특정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 노무현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메이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의적 동기가 깔려있다는 비판을 받고

땀질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성질의 법이 아니다. 신문법이 정 필요하다면 국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신장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기본적인 대전제 위에서 만드는 것이 정도(正道)다. 언론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조항이 적지 않은 언론중재법도 대폭 손질해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조항들은 전부 없애야 옳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그런 언론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언론을 이런 저런 구실로 옥죄고 사실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 방해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권력자의 마음대로 정치권력을 휘둘러 보겠다는 전제군주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나라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선진화의 장래도 보장될 수 있다. 말썽 많은 ‘신문 악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신문법 등 9월 국회서 일괄 손질

신 문화 차관 언론도 시장원리 적용”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이 25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사인빌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방송학회 등 4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현 정부의 포괄적인 언론정책 방향을 밝혔다.

세계와 겨룰 거대 미디어그룹 필요

신 차관은 4월 25,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계에 시장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문화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그룹이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세계 문화산업에서 점유율이 40% 이상인데 우리는 2%에 불과하다. 앞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IPTV를 쏘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내 미디어 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이다. 강력한 자본력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큰 미디어 그룹이 탄생해야 한다. 그래야 문화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궁극적으로 신문 방송 통신 자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제거해야 한다.

◇1980년 5공 정권이 들어선 이후 KBS 2TV가 생기는 등 언론 통폐합이 있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현재 MBC의 소유구조도 5공 때 탄생했다. MBC 문제는 구성원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견,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공영방송을 원한다면 공사 형태로 가서 광고를 줄이고 공영성을 강화해야 하며, 민영방송을 원한다면 확실하게 시장으로 가야 한다. 5공 청산의 차원에서 MBC의 소유구조는 정상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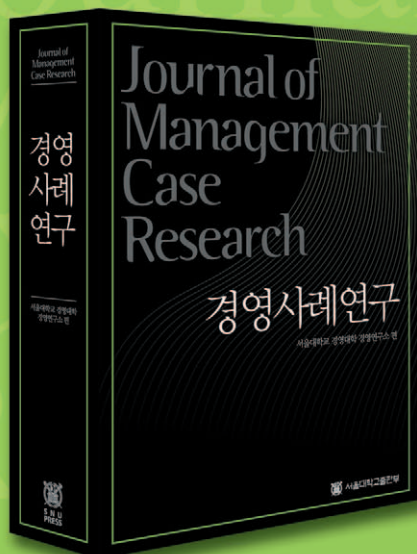
MBC 소유구조 정상화… 5공청산

◇지난 정부에서는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죽어가는 매체를 살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현재 시급한 것은 언론의 난립을 해소하는 문제다. 현재 전국에 일간지가 300여 개, 인터넷 신문은 1000여 개가 있다. 법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매체는 자유롭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특정 언론사에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2012년 지상파와 케이블TV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채널이 수십 개씩 늘어난다. 미디어계에는 공영방송의 소유형태, 신문 방송 겸영, 방송 통신 융합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원 바이 원(One by One)’ 식으로 고치는 것은 어렵다.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뉴스통신진흥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모든 것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바뀌어야 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재개정을 계기로 나머지 미디어 관련법도 한꺼번에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서울대학교출판부의 책은 우리 미래의 문화재입니다.



사업 성공의 「秘書(비서)」

경영사례연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진, 경영학도들이 개발한 경영 실무와 경영학 연구의 寶庫

유한김벌리 · KTF(K-Merce) · 한국타이어 · (주)아이리버 · NHN · MOBILIAN · 파크랜드 · 광동제약(비타500) · STX · (주)아모레 퍼시픽(설화수, O-Sulloc Tea House) · 대림(e-편한세상) · 회연병원 · (주)좋은사람들 · KT(비즈메카) · 오리온 그룹 · 하이닉스 · 하나코비(락앤락) · 리노공업 · 삼성건설(래미안) · 교보자동차보험 · 두산(처음처럼) · 넥슨(카트라이더) · 서울시설공단 · Kosney · CJ 홈쇼핑 · 한국석유공사 · SK텔레콤(MelOn) · ECO · 엔투비 · 하나은행 · 한국주택저당채권유통화(KoMoCo) · 하나투어

특별 이벤트

책을 기증해 드립니다

독서 후기 참여자 중 매월 10명을 선정하여 귀사(귀하)의 이름으로 기증해 드립니다. e-mail전송, 500자 내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編 가격: 150,000원 (4*6배판 · 양장 · 1300p)

발행처: 서울대학교출판부

구입문의: (02)888-6908 / FAX: (02)888-3406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e-mail: mentor@snu.ac.kr

입금계좌: (농협) 079-17-050818 / 서울대출판부

신문시평

社說의 정파적 주장 약화

지난 4월, 언론의 큰 관심의 하나는 18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9 총선에 관련된 보도였다. 언론들은 약 5대 1의 경쟁률, 14개 정당 후보의 난립, 기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분열·분화 등을 취재 보도했지만 잔치 후엔 늘 그랬듯 정계의 흐름과 향방에 촉각을 세웠다.

필자는 총선 직후인 10일부터 17일까지 신문들의 사설이 각 정당의 '성공과 패인'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새로 구성될 국회에 무엇을 주문하고 기대하는지 살펴보았다. 같은 기간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및 한겨레신문이 총선과 직간접으로 관련해 다룬 사설은 21건이었다.

한나라당의 '성공'에 대해 사설은 이명박 정권의 안정론에 무게를 두어 분석하고 있다. '안정론' 쪽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경향)을 비롯 '국정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도록 안정 의식을 안겨줘'(서울), '민심이 힘을 실어줘'(중앙) 등으로 '안정'을 강조하는 외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패인'에 대해서도 공통된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집권 여당을 견제할 정치적 대안을 인정받지 못해'(경향)에서부터 '민



이 병 국

· 본회 논설위원
· 한국경제 편집부국장
· 전 한서대 교수

내놓고 있는 주제는 경제 살리기이다. '국민은 경제를 살리라고 한나라당을 과반 여당으로 만들어 줬고'(동아), '경제 살리기의 시대정신에 실적을 내놓으라는 명령'(중앙)으로 강조하고 있다. 주장의 관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겠으나 전체 사설 21건중 절반에 이르는 9건이 경제정책관련에 집중하고 있다. 보수진영의 일방주의에 보다 경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논조가 7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과 독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경향), '독주의 유혹을 떨쳐내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서울), '한나라당은 정책적 우선 순위를 국민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우선 순위를 겸허하게 수용할 일'(조선), '한나라당은 다수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오로지 의석수만 믿고 정책들을 밀어붙여서는 안

총선 전 안정·견제론 대립도 씻은 듯 열어진 '이념'...경제살리기 한목소리

의와 동떨어진 잣대와 아마추어리즘으로 독주'(서울), '잃어버린 10년을 심판받아'(중앙), '국민이 민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아'(한겨레신문) 등으로 큰 틀에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의 실패를 주 패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의 부진 요인에 대해 사설은 추상적·진보적 이념성향에 대한 비판과 진보세력의 분열에서 찾고 있다. '진보를 거부하는 우리 사회의 정치 토양'(경향), '노동자 서민들이 걸었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한겨레) 그리고 '좌파·진보로의 쏠림이 반작용을 불러'(서울) 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총선에서의 각 정당의 성공과 패인을 놓고 볼 때 '민심을 따르면 흥하고 거스르면 망한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바른 정치의 기본임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러한 분석에는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적 편견이나 정치적 색깔이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총선 후 정부나 새 국회에 대한 '주문과 기대'에 대해서도 신문의 이념적 성향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사설에서 가장 많은 주문을

될 것'(한겨레) 등이 그것이다.

특히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 조치를 촉구한 동아일보의 사설이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총선관련 사설을 가장 많은 7건이나 선보이고 있는 이 신문이 '총선 공천장사 의혹 철저히 밝혀져야'(14일), 공천대가 특별당비 의혹 검찰이 수사해야'(15일), '이런 비례대표는 없으니만 못하다'(17일)의 제목으로 문제점을 다루면서 비례대표 제도의 전면 손질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미디어 선거'로 얘기될 만큼 언론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높은 미디어의 영향력 때문에 총선 전엔 여당의 안정론과 견제론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고 일부 신문을 중심으로 두 견해의 한쪽을 강조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총선 직후 집권당이 나 각 정당에 대한 주문과 기대서는 그 같은 '대리전' 모습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우선하되 '승자 독식'을 경계하고 대화를 통한 국정 운영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직전에 보였던 정파적 주장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국문]

방송시평

말의 盛饌 '선택 생생토크'

4월에는 칭찬하는 방송평을 쓰리라고 미리 마음먹었다. 그리고 '아침마당'을 선정했다. 사회자들의 진행이 매끄럽고 패널들의 자연스런 대화와 해박한 지식이 돋보였으며 내용도 비교적 건전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침마당 제작진은 기획의도를 "일상에서 만나는 선한 이웃의 다양한 이야기를 요일별로 특화해서 감동과 재미,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침 방송시간의 대부분이 드라마나 연예인들의 잡담 프로그램 차지가 돼버린 현실에서 아침마당은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인간 심리 그리고 생활에서 적용할 교훈 등도 전해 주는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인 것이다.

요일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가운데 금요일의 '선택 생생토크'를 선정했는데 4월 11일과 18일자 방송을 모니터하면서 당혹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사회자를 비롯 출연자 모두 언변이 뛰어나고 재치와 순발력도 넘쳐서 때로는 고속철도를 타고 달리면서 흘러가는 경치를 보는 것 같아 어지럽기도 했고, 내 쏟는 어휘를 따라잡지 못해 얼떨떨할 때도 있었



호 천 웅

· 본회 회우
· KBS 전 청주 총국장
· 전 신성대학 교수

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송을 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일 수 있는 선택을 고집하고 현명한 어머니의 깨우침을 묵살해서 불행을 자초하는 길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18일자의 주제는 '그는 얼마 만에 날 잊을까'였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경우 첫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프로그램이 출발하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보다 빨리 잊지만 여자는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산다"느니, "첫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남편에게 미안하기는 하지만 죄는 아니다"는 등 현란한 말잔치가 요란했다. 그러면서 결론에서 "결혼 전에 있었던 이성관계는 절대로 상대방에게 말해선 안된다"고 충고한다. "지난 사랑 얘기는 입도 병곳하지 말라"고 한다. 그렇다면 첫사랑 얘기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은

흥도 보이지만 건전한 내용 돋보여 천박한 잡담 프로들과는 비교안돼

다. 재미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제작기법의 결과이겠지만 무책임하게 말을 그냥 내뱉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었고 상대의 말을 마구 가로채는 태도도 못 마땅해 보일 때가 많았다. 절제된 언어, 교양 있는 태도로는 자연스러움이 덜해지면서 흥미유발의 효과가 줄어들 지도 모를 일이지는 하다.

11일자의 주제는 "내 아들의 여자 친구"였다. 아들을 둔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이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느끼는 섭섭함을 꾸밈없이 토로하는 대화에 대부분의 주부들이 공감할 하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잘 받아 들여야 한다. 불연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거나 "품 안에 자식이지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든가 "어머니의 사랑의 덫이 자칫 아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또는 "진짜 사랑한다면 아름다운 포기를 해라"는 등의 말은 물론 일리가 있겠지만 자칫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었다.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의 경륜을 가벼이 보는 생각들을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전

무엇 때문에 제작했는지 모르겠다. 주부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 시청률을 높이겠다는 상업적 사고의 결과로만 보였다.

"남편에게 불만이 있는 주부라면 옛 남자와의 만남을 시도하거나 전 화라도 걸 계기나 명분을 마련해 줄 수도 있을 일이다. 다만 지금의 나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실재가 아닌 관념의 대상으로 첫사랑이 떠오를 뿐이지 막상 만나고 보면 문제가 생기거나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남편이나 아내가 소중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사랑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조언 등은 귀담아 들을 만한 충고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선택 생생토크'는 마구잡이식 잡담을 늘어놓는 듯이 보이고 지나친 말장난이 거부감을 불러오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과 예화를 토대로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나름의 해결 방법도 제시하는 질서와 구도는 갖추고 있다.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 아쉽기는 했지만 천박한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칭찬을 받을 만한 제작이었다. [국문]

물, 자연 그리고 사람

대한민국의 물에서 세계의 물로- 세계속의 물 전문기업이 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국경이 없는 것처럼
물로 행복을 만드는 K-water에게 더 이상 국경은 없습니다
해외 10여개 나라에 수자원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K-water,
세계속의 물 전문기업이 되겠습니다



“눈에는 눈…” 核에는 ?



김철

· 본회 회우
· 15대 국회의원
· 국민대 초빙교수

核문제는 군사력의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政治力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보유하되 사용하기는 용이치 않은 것이 核이기 때문이다.

누구든 권총 함부로 못 빼게

냉전기간을 통해 核은 ‘공포의 均衡子’로서 본격적인 大戰의 발발을 방지하였다. 바로 이런 설명이 전통적으로 국제정치학자들이 냉전의 상대적 평화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같은 ‘공포의 均衡’이면서도 다른 처방이 있었다는 것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核무장의 이론가 피에르 갈로와(Pierre Gallois) 장군의 견해(저서: ‘공포의 균형=The Balance of Terror’)는 매우 독창적인 것이었다. 갈로와는 核을 제한하는 것이 확산되도록 놔두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이론을 펼쳤다. 그저 核을 제한만 하게 되면, 한국전쟁과 같은 制限戰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세계가 核전쟁의 자살적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러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세상을 보다 안전하게 만든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모두들 권총을 차고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빼들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불행하게도 갈로와의 견해는 오늘날 核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점점 근사치에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다.

갈로와의 이론에 따른 드골 대통령의 주장을 소박한 말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美國이 유럽을 위해서 核전쟁을 불사한다고 믿기는 어렵다. 소련



北核은 이미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다.

北核은 ‘北의 모든 것’…결코 포기하지 않을 듯 해법 없으면 ‘공포의 균형’ 심각하게 고려해야

이 프랑스를 全破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모스크바 하나만이라도 박살낼 능력을 갖춘다면 소련도 함부로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核무장을 단행했다. 프랑스의 정치적 발언권에는 核무장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1950년대 초 毛澤東은 “지금의 세계에서 우리는 타국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 核무기를 반드시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1964년 중국은 錢學森의 주도로 원폭실험에 성공한다. 중국은 또 60~70년대에 兩彈一星(원자탄, 원자탄 운반체, 인공위성)의 목표하에 소위 전략적 위협역량의 기초를 닦았다.

6者중 韓·日만 비무장 상태

싱가포르 합의니 뭐니 하지만 北核은 이미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다. 그들은 결코 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核은 북한이 가진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北核이라는 군사력과 정치력에 대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6자회담 참가국 중 4자는 이미 核을 가지고 있고, 남은 쪽은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뿐이다. 그러나 일본은 작심한다면 순식간에 核보유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는 전쟁관리 방법이 시스템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에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물자를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EU의 창시자 장모네 같은 이니셔티브가 아예 없다. 동아시아의 현실에서는 좋은 싫든 군사력이 생존기반이다.

1970년대 후반 朴正熙 대통령은 주한 미군 철수를 설득하러온 브라운 미 국방장관에게 “정 그렇다면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도 核문제를 남의 정신이 아닌 나의 정신으로 심각하게 생각해볼 때가 왔다.

시리아공습 때 北 요원 10명 사망

일본의 NHK 방송은 지난해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시설을 공습했을 때 북한 요원 10명이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보도한다고 보도했다. NHK 방송은 한국 정보당국자의 말을 빌려 이같이 보도하면서, 숨진 10명은 모두 현장에서 화장된 뒤 한달 뒤 북한으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NHK 방송은 이어 2~3명의 북한 요원들은 공습 뒤에도 생존해 있었지만, 이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NHK 방송은 숨진 10명중 상당수는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의 ‘99호실’ 요원으로 보여진다는데, ‘99호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외화 획득을 위해 무기와 군사기술의 수출을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KBS)

北 ‘핵협력’ 발표에 아직 무반응

미 백악관이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 의혹을 공식 발표한 데 대해 북한 당국이나 언론매체들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7일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핵물질을 넘겨주거나 그것을 생산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다”며 “미국은 핵과 관련해 그 누구를 비난하고 문제시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고 주장했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제안 거부

북한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북남 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며 여론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연락사무소 설치방안 자체를 “반통일 골동품”이라고 비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에 대해 “일지무식쟁이”, “정치몽유병환자”, “얼뜨기” 등의 원색적 표현을 썼다.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대 명예교수 57인이 오늘의 젊은이에게 주는 글

김윤식 장신백 구인환 이충용 정경관 김문환 한인규 송해균 정원식 김용일 한상복 임종철 이순형 이상숙 최중태 김진균 반성환 정전홍 조석준 심계기 정석진 박상대 이현복 김경순 조용길 김관호 허 경 박용안 전교훈 이동녕 이용필 심영호 박동서 이정호 유근관 김택주 김제환 김시훈 문 용 김안재 비현덕 이병한 김수배 신승하 양승규 이 환 박갑수 김광술 이인규 오석홍 차경수 이광규 하영철 김용희 차재호 박세희 황익인

다섯 수레의 책
필자들에게 전한 진언에 주고 싶은
한 인간의 지혜에 관한 책
기입니다. 이 책은 한 인간의 삶을
통찰하는 데에 있어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 책은 두 사람의 사랑을
통찰하는 데에 있어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멘토 시리즈
필자들이 스스로 배운
20대 청년기의 이야기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던 때부터
슬의 길에 들어서면서
대학의 의미, 인생의
생각,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필자들에게
전합니다.

멘토 시리즈
필자들이 스스로 배운
20대 청년기의 이야기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던 때부터
슬의 길에 들어서면서
대학의 의미, 인생의
생각,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필자들에게
전합니다.

멘토 시리즈
필자들이 스스로 배운
20대 청년기의 이야기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던 때부터
슬의 길에 들어서면서
대학의 의미, 인생의
생각,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필자들에게
전합니다.

멘토 시리즈
필자들이 스스로 배운
20대 청년기의 이야기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던 때부터
슬의 길에 들어서면서
대학의 의미, 인생의
생각,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필자들에게
전합니다.

mentor series

SNU PRESS

〈주문서 특급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mentor@snu.ac.kr | 전화 : 02-888-3406 | 농협 : 079-17-050818 | 정가 : 39,000원 (3권 1월)

老기자들 계룡대를 ‘취재’ 하다

본회 회우들 ‘봄 야외수련회’ 이모저모

대한언론인회 회우 96명은 지난 4월 17일 3군사령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둘러 보고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호국영령들의 충혼을 기렸다. 평소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방문지의 특수성 탓으로 참가신청은 2시간 만에 마감돼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08년 봄 야외수련회를 시간대별로 스케치했다.

김윤진·임인흡 회우 노익장

08시 30분 원로 기자들을 태운 2대의 관광버스가 프레스센터 앞을 출발했다. 참가자 가운데 최고령은 김윤진(金允津) 임인흡(林寅翕) 회우. 1919년생으로 노익장을 과시하며 봄·가을 수련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협회 사무실의 주소영 사원의 70년 연배로 2세대 차이다. 홍일점은 한국여성언론인연합 대표 신동식(申東植·71) 회우로 건강미가 넘친다.

‘지공파(지하철 공짜파)’ 대열에도 끼지 못하는 65세 미만 ‘미성년(?)’ 참가자는 8명. 그 중 막내는 1951년생 임상학(林相鶴)회우. 김건이(金健二)상임이사가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2호 버스에서는 나용경(羅龍京)회우가 떡과 음료를 나눠주며 봉사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뜨거운 물에 “으, 시원하다”

11시 10분 유성온천 계룡스파텔에 도착하여 온천욕. 계룡대 방문 뒤 들을 예정이었으나 점심 식사 후 입욕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순서를 바꾸었다.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짧은 온천욕이지만 온천탕에 몸을 담그며 연신 “으, 시원하다”를 연발. 출발 시간에 맞추려고 서두르며 아쉬움을 털어놓는다. 일부 회우들은 온천욕 대신 주변을 산책했다.

육군복지근무지원단에서 운영하는 계룡스파텔은 군 휴양시설로 현역과 예비역 군인,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로 예식장, 식당, 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추었다.

8각형 3軍본부 통합기지

12시 40분 계룡대에 도착, 버스와 도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1호 버스에는 계룡대근무지원단 정훈장교 배은기 소령이 폭 넓은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열정적으로 안내를 해주었고, 2호 버스에서는 ‘미소가 아름다운’ 여군 김민숙 중사가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었다. 계룡산 기슭에 위치한 계룡대는 육군·해군·공군 3군 통합기지로 총 면적은 2970만㎡(약 900만 평)에 이른다. 1989년 7월 육군본부와 공군본부가 입주한 뒤, 1993년 6월 해군본부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3군의 새로운 통합기지가 되었다.

3군 통합 본청은 팔괘(八卦) 사상에 바탕을 둔 팔각형의 건축양식이다. 미국 국방부 팬터건과 비슷한 지하 3층, 지상 5층이다. 한민족의 번영과 약진을 상징하는 통일탑을 비롯하여 군인가족들을 위한 주거시설, 학교, 병원, 백화점, 할인점, 골프

장, 교회, 법당 등 각종 복지 편의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다.

초록으로 물든 울창한 숲 속에는 사슴들이 뛰놀아 마치 전원도시를 방불케 한다. 회우들은 “요즘 군대 참 좋아졌다”며 어려웠던 군 시절을 회고한다. 계룡대가 들어선 계룡시는 인구 3만6846명(2006년 기준)의 도·농복합형태의 국방도시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이다.

대전시·충남도 뜻밖의 예우

13시 10분 계룡대 구내 연회장인 ‘무궁화 회관’에서의 즐거운 점심 식사. 계룡대근무지원단장 안희수

군장병들 따뜻한 환영·안내 인상적 짧은 온천욕에 아쉬움도 무궁화회관 오찬... 화기애애



계룡대를 방문한 회우들의 단체 기념사진.

해병준장이 회관 앞에서 일행을 반갑게 맞는다. 식사에 앞서 조창화(趙昌化) 회장은 “16대 회장을 맡은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유익하고 보람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대한언론인회 회우들을 성심껏 환영해 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이 자리를 마련해 준 대전광역시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영관 정무부시장은 “언론계원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고, 제재형(諸宰馨) 명예회장의 건배사가 이어졌다. 점심 메뉴는 얼큰한 쇠고기 낙지전골에 쇠고기와 낙지볶음 안주. 소주를 권하며 화기애애한 가운데 환담을 나누었다. 한편 이완구 충남지사는 공보관을 통해 회우들에게 김 한 상자씩을 선물했다.

신도안서 ‘鷄龍’ 발자국 찾고

15시 10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신도안 주

초석 석재’ 유적지(충남문화재 제 66호)에 들렀다. 고인돌을 연상케 하는 석재의 크기는 1.2mX1.8m로 궁궐 건축용 주춧돌로 추정된다. 신도안은 조선 초 태조가 이 지역을 답사했을 때 동행한 무학대사가 산세를 보고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금 닭이 알을 품는 형세)’이자 ‘비룡승천형(飛龍昇天形·용이 날아 하늘로 올라가는 형세)’이라 일컬어 ‘계룡(鷄龍)’이라 이름짓고 도읍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기초공사를 하던 중 물길에 멀어 포기했으며,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일대에 흩어진 석재를 모아 이곳에 보존하고 있다. 배은기 소령의 해박한 설명과 김관태(金官泰) 회우(박물관 ‘도슨트’)의 깊이 있는 보충설명이 이해에 큰 도움을



유성온천 계룡스파텔에서 모



환담을 나누며 점심 식사



국립대전현충원의 현충탑.



국립대전현충원 참배후 현충탑에 관련된 설

주었다.

현충원 참배 호국의 뜻 기려

15시 40분 호국영령들이 잠든 국립대전현충원에 들러 참배를 했다. 1976년에 조성된 2만3100㎡(약 7,000여 평)의 현충원에는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등의 유해와 위패를 모셔 놓았다. 높이 43m에 길이 110m인 현충탑 3면 탑신에는 우리 민족의 찬란한 전통문화(과거)와 자랑스러운 현대문화(현재), 그리고 영광된 미래문화(미래)를 청동조각으로 새겨 놓았다.

현충원 위쪽 국가원수 묘역에는 2006년 10월 22일 향년 88세로 타계한 최규하 전 대통령과 2004년 별세한 전 영부인 홍기여사의 유해를 합장해 놓았다.

빠빠한 일정으로 귀경 늦어져

19시 50분 예정 보다 늦게 출발한 탓으로 빠빠한 일정을 마치고 19시 50분 프레스센터앞 도착, 아쉬움을 남기며 헤어졌다.



뜨거운 물에 피로를 풀고....



식사를 즐기는 회우들.



민족의 번영·약진... 계룡대 통일탑.



영을 듣고 있다. 앞 줄 오른쪽은 배은기 소령.

5월 가정의 달... 가족 나들이

추억이 일렁이는 초록빛 들녘

고창 청보리밭축제

전북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주제로 5월 12일까지 공음면 학원농장 청보리밭 일원에서 펼쳐진다. 100ha에 달하는 고창의 구릉은 초록바다로 변했다. 올해 5회째인 청보리밭축제는 광활한 보리밭 경관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지역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경관농업으로 고부가가치

보릿고개는 가난했던 시절, 우리 민족이 힘겹게 넘었던 눈물겨운 삶의 고개다. 해마다 춘궁기(春窮期)가 되면 봄나물을 뜯어 죽을 쑤어 먹거나, 보리 개떡으로 허기를 채웠다. 그 시절 아이들의 주전부리는 산딸기와 오디, 밀서리가 고작이었다.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사라져 가는 보리밭의 빼어난 경관을 배경으로 보릿고개 시절의 체험과 향수와 추억을 비빔밥처럼 버무린 대표적인 향토 문화축제다. 훈풍에 넘실거리는 초록물결은 싱그럽고 보리밭 사이길은 정겹다.

'보리밭 사이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박화목 가사에 문정선이 부른 '보리밭'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진다. '보리피리 불며/꽃 청산/어린 때 그리워/피-리 놀리리' 한하운 시인의 절창 '보리피리'가 떠오르면서 보릿대를 꺾어 피리를 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지랑이처럼 곱실곱실 피어오른다.

보리비빔밥·풍천장어 별미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어른들에겐 추억을, 어린이들에겐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체험행사로는 보리밭 사이길 걷기가 가장 인기가. 허기를 채워주던 보



고창 청보리밭축제의 보리밭 사이길 걷기(고창군청 제공).

향수어린 사이길 마다 詩가 감돌아들고 디딜방아·맷돌 돌리기 등 체험행사 다채

리개떡을 만들어 먹고 도리깨로 보리타작도 해 볼 수 있다. 디딜방아 찢기와 맷돌 돌리기는 먹서기만 보던 아이들에겐 조상들의 생활지혜를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봄나물을 엮고 고추장을 듬뿍 넣어 비벼먹는 보리비빔밥은 담백하고

구수하다. 복분자 와인을 곁들인 풍천장어는 이 지역의 별미다.

고창 청보리밭은 5월 초순까지 보리밭의 푸르름이 절정에 이르러 초록 용단을 깔아 놓은 듯하고, 중순부터는 보리이삭이 누렇게 익어 황금물결을 이룬다.

수확이 끝난 보리밭은 다시 해바라기밭으로 노랗게 변하고, 9월에 들어서면

소금을 뿌려놓은 듯 거대한 메밀밭으로 탈바꿈된다.

고창에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와 선운사, 고창읍성, 무장현 관아 등 관광명소가 많아 함께 둘러보기에도 적당하다.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가 펼쳐지는 함평천 일대(함평군청 제공).



초록의 바다를 이룬 보성 차밭(보성군청 제공).

◇서울 '궁' 테마 축제

▲경복궁 왕위즉위식(5월 3일 오후 5시)=근정전 앞에서 '세종, 융상에 오르다'라는 제목으로 드라마 형식의 왕위 즉위식과 함께 화려한 궁중연회가 펼쳐진다.

▲덕수궁 고궁음악회(5월 5일 오후 6시)=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등 대중적 인기가 있는 클래식은 물론, 무대에서 듣기 힘든 포퍼와 보테시니의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경희궁 고궁뮤지컬(5월 4~12일)=브로드웨이에까지 올랐던 한국의 대표적 뮤지컬 '명성황후'를 실제 궁궐에서

공연하는 이색무대.

◇유명 지역축제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4.18~6.1일)=지역축제를 넘어서 세계적 축제로 우뚝 섰다. 세계 각 국에서 수집된 87종 3만4000마리의 곤충들과 나비와 곤충 화석들을 볼 수 있다. 33만㎡에 달하는 함평천 일대엔 자운영과 유채 등이 꽃의 바다를 이뤘다.

▲보성 다향제(5.3~6일)=전남 보성 대한다원 일원에서 열린다. 찻잎 따기와 차 만들기, 차 사발 만들기, 차 음식 만들기과 녹차김치 만들기 등의 다

채로운 체험행사가 열린다. 구방다례나 선비다례, 궁중다례, 고려다례 등 차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와 예법 등도 익힐 수 있다.

▲이천 도자기축제(5.10~6.1일)=도자를 직접 주무르고 빚는 게 매력. 레고로 만드는 도자경진대회, 차 마시고 찻잔 가져가기, 새끼줄 포장도자기 등은 흥미를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 바래봉철쭉제(5.10~17일)=남원시 운봉읍 가축유전자 시험장 뒤편 바래봉 자락에서 열린다. 해발 500m에서부터 시차를 두고 피기 시작, 정상까지 5월내내 철쭉이 장관을 이룬다.

www.kra.co.kr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馬力

생명존중과 사랑실천의 공익기업 KRA

공정하고 원활한 경마시행으로

말산업을 선도해온 KRA는 경마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우리의 이웃에 환원하여 더 볼어 따뜻한 사회,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RA 한국마사회

※과도한 마권구매는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KRA는 마필 생산육성 등 1차 산업에서 오락, 레저, IT산업까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 KRA는 농촌, 생명, 자연사랑을 테마로, 매년 이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농어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참여등을 통해 더불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中)

꿈이론 주부DJ



정 응 석

- 본회 회우
- KBS 취재주간
- FM분당방송 대표(현)



지역 FM방송을 통해 마침내 소녀시절의 꿈을 이룬 ‘늦깎이 주부방송인’들이 많다.

얼마전 대학친구가 E-메일로 보내온 글 중에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하나 있었다. 일본의 명치유신을 주도한 개혁세력 가운데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교육가가 쓴 글이었다.

이 사람은 에도막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혁명정부가 일본에 들어선 1865년 때의 인물로, 명치정부가 몇 번이나 입각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한 인물이다. 정치가가 되지 않고 교육가가 되었다. 게이오 대학을 설립한 창시자며, 현재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1만원권 지폐에 등장한,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사람들

후쿠자와는 일본인들에게 7가지의 심훈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제 1항의 글이 인상적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멋진 사람은 일생을 바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웃이 있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주부 방송진행자다. 이들은 방송에 전혀 경험이 없는 어머니들이다. 그저 막연히 ‘방송의 DJ가 되고 싶다’라는 희망은 있지만 자신들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주부들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바로 동네 방송인 지역 FM라디오 방송이 그 기회를 제공했다.

2004년 겨울, 분당에서 지역방송의 진

행자들을 모집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방송국을 찾아온 지원자들 가운데 경상도 사투리가 유난히 강한 한 어머니가 있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제안을 불쑥 했다. “마이크를 잡고 거리를 한번 나가 보세요. 시민들의 인터뷰를 방송에 한번 내 보내세요.”

이 어머니는 매우 난감해 했다. 집에 있자니 따분하기도 하고 무얼 할 일이 없을까 하고 친구 따라 방송국에 한번 와 본건데 방송진행자가 되라고 하니 당황할 만도 할 것이다.

FM분당방송을 찾아왔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본 지역FM방송이 시작한 지 반년이 되었으니 그 성공사례를 취재하려는 것이었다.

누구든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시골에 살고 있는 친정 아버지가 더 신이 났단다. 동네방네 친구들에게 신문에 난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 애가 내 딸이네”라고, 딸에게도 전화했다. “신문 말고 TV에도 나올 수 없겠니?”

자랑스러운 주인공들의 산실로

지난 연말 송년회 때 방송진행자들이 모두 모인 회식장에서 이 어머니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렇게도 하고 싶어 한 방송진행의 기회를 주신 방송국에 깊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참석자 모두가 가슴이 찡한 것을 느꼈다.

이 어머니는 지금도 마이크를 잡고 분당의 거리를 휘젓고 있다. 스튜디오에서는 학창시절 좋아하던 음악들을 틀면서, 밖에서 담아온 인터뷰에 브리지 멘트를 하고 있다.

꿈 많은 여고 시절 막연하게 그렇게도 하고 싶어 한 방송DJ를 40대 중반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가 비유한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멋진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이 어머니가 아닐까. 이런 멋진 주인공을 만들어 내고 있는 곳이 바로 옆에 있는 동네 방송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이런 주인공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생각이다.

◇알림 = 김화 회우의 「나의 취재 비망록 - '충무로의 전설(中)」은 지면 사정으로 연재를 미룹니다. 해량 바랍니다.

‘경상도 어머니’가 방송마이크에 도전

언어교습소 다니며 사투리 교정하느라 진땀 여고시절 막연했던 소망이 지역FM서 활짝

얼마 후 이 어머니는 도전했다. 가장 먼저 언어연습소에 달려가서 사투리 교정연습을 시작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큰 소리로 신문을 읽었다. 드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파를 탔다. 누가 들어도 거북한 순간이 많았다. 더듬거리고 사투리 억양이 강하고...

각고의 노력 석달만에 결실이...

나는 눈 딱 감고 기다렸다. 중앙방송이면 어렵도 없는 모험이다. 당장에 방송에서 내려와야 할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다. 3개월 정도 지나서 어머니의 방송습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자신감도 생기고 사투리도 점차 줄어가고, 주변의 시선들도 바뀌기 시작했다. “경상도 사람도 방송이 가능하네.”

이러던 중 중앙의 한 일간지 기자가

달라는 제안에 나는 이 어머니를 추천했다. 이 어머니는 방송진행을 그렇게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좋은 취재대상이 아닐까 해서다.

얼마 후 이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제목이 매우 선풍적이었다. ‘마이크를 잡고 보니 인생이 달라졌다.’

출근하려던 남편이 조간에 난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 신문에 나온 사진의 여인이 바로 자기 부인이 아닌가. “당신이 무슨 방송이냐”고 핀잔을 준 게 얼마 전인데 우습게 본 자기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마스크에 등장했으니 놀랄 만도 했을 게다. 이 어머니는 어깨가 으쓱했던 모양이다. 남편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자랑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권장도서 해제집
서울대학교 편

『권장도서 해제집』출간

서울대 교수들이 선정한 고전 100선의 해제

도서 구입 안내
서울대학교출판부
TEL : 02-888-6908
E-mail : mentor@snu.ac.kr

“가슴이 따뜻한 지성인을 위해
열린 시대에 열린 사고를 위해
새로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지식과 교양의 길잡이

지성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며, 인간을 둘러싼 이 세계에 대해 깊은 고뇌와 함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고전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인간에게 혹은 자연이 인간에게 또는 인간이 자연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냉혹하면서도 정연하게 보여준다. 고전으로 널리 알려진 100권을 선별하여 해제집을 출간한다.

우리야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고전은 지금까지 인류 문명이 성취해 온 것의 정수를 담고 있는 보고와도 같은 것이다. 고전에 관한 지식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복잡화, 가속화될수록 특종으로 하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동등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진정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인이 되려면 지금까지 인류가 어떤 문화적 성취를 이루었는지 그 폭과 깊이를 아울러 개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능력은 고전을 접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다.

유라테크 광고 필름 有

이 시대 영원한 언론인 故 이동욱 선생

땅 가진 내력 등 그날 처음 밝혀

지난 4월 2일 향년 91세로 돌아가신 전 동아일보 회장 오현(梧軒) 이동욱선생에 대한 추모사를 필자가 쓴다는 것은 여러 선배들이 계신데 외람된 일이다. 그럼에도 쓰게 된 것은 가시기 직전인 3월 31일 회장님의 초대로 대한언론학회 조창화 회장과 필자, 셋이서 오찬을 함께 하며 아마도 마지막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 회장께서 장어 정식을 다 드시는 것을 보고 속으로 “참 건강하시구나”고 생각했다. 이 회장께서 건강 얘기를 많이 하셨다. 폐렴 예방주사를 꼭 맞으라면서 “나이 든 사람이 폐렴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갈 수 있네”라고 말씀하셨다.

이 회장께서 또 일본에서 대학(와세다대 정경학부)을 마치고 귀국한 후 대학 선배인 장덕수 선생의 소개로 동아일보에 입사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다. 이 회장께서는 기자로 출발해 주필과 사장, 회장까지 오른 유일한 언론인이었다.

그날 또 이 회장께서 어떻게 해서 땅을 갖게 되었는지도 얘기해 주



마지막 모습

이동욱 선생은 별세 열흘 전에 대한언론학회 전·현 회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조창화 회장(사진 뒤쪽)의 휴대전화에 마지막 모습을 남겼다. 앞줄 왼쪽으로부터 제재형 명예회장, 이혜복 고문, 이동욱 선생, 신우식 고문.

전문가로 경제 관료들이 그의 경제 논평과 칼럼을 교과서처럼 여겼지만 동시에 그분의 지적과 비판을 가장 두려워하기도 했다. 그만큼 분석과 전망이 예리하고 정확했기 때문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이미 7개월 전에 문화일보에 기고한 논평 ‘외환위기의 실체를 보자’에서 멕시코 경제가 경험했던 경제 파국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께서 경제 뿐 아니라, 국제정치에도 일가견을 갖고 있어 학자들과도 종종 좌담과 토론을 가졌다. 그분은 71년 고강원릉 목사, 김점곤 교수와 함께 ‘평화토론회’라는 포럼을 창설해 지금까지 포럼을 이끄셨다.

가시기 이틀전 오찬 함께하며 되레 후배들 건강 걱정 칼날 권력비판으로 곤욕...IMF사태 7개월전에 경고

셨는데, 70년대 초 도쿄에 갔을 때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의 땅 값이 크게 오른 것을 보고 땅의 가치를 알게 됐다고 했다. 마침 절친한 친구인 이회림 회장(대한양회 설립자)이 부천에 공장 부지를 사면서 평당 35원씩으로 싼 땅이니 사보라고 해 부인께서 타신 켄돈으로 사게 된 것이라고 했다. 처음 하시는 얘기였다.

항상 “공부하는 記者되라” 당부

이 회장께서 지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60년간을 오로지 언론 한 길을 지키며 옳으면 옳다 하고, 옳지 않으면 거침없이 권력을 비판한, 그야말로 시대의 논객이었다. 그 때문에 서슬 퍼런 국가비상사태때 날카로운 비판으로 한때 신문사를 떠나게 됐다. 이 회장께서 특히 경제

평소 이 회장께서는 동아일보뿐 아니라, 타사 후배 논설위원이나 기자들의 논평과 칼럼을 읽고 직접 전화를 해 격려하거나 점심에 초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글 쓰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신문사 시절, 이 회장께서 기자들에게 항상 ‘공부하는 기자가 되라’며 국제 정세를 바로 알려면 이코노미스트나 타임지 같은 외국 저널을 읽으라고 일깨워 주셨다. 그분은 기자는 글을 써야 한다며 특히 “칼럼을 써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원로 언론인들도 몇 분 계시지 않다. 오현 선생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글을 쓰고 계실 것이다.

문명호(본회 부회장·전 문화일보 논설주간)

서터를 누르며

나는 내가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이 나이가 되도록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정범태

- 본회 회우
- 조선·한국 사진부장
- 풍류방 대표(현)

청소년기를 빼고 60여 년간을 우리

나라 명창·춤꾼들의 흥과 신명을 만나고 그들의 열정을 카메라에 담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몇몇 유명인들이 야 양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속·국악분야의 예인(藝人)들은 무명의 그늘에서 고난의 세월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엔 무진장의 ‘인간 보석’들이 진흙속에 묻혀 잊혀져 가고 있다. ‘우리 것’—우리 고유의 예맥(藝脈)을 찾아 겨레의 심안(心眼)에 인화하는 내 필생의 작업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心眼에 印畵한 藝人들의 열정



작년 ‘예술의 전당’에서 85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오랜 전통춤인 ‘살풀이 춤’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은 전북 남원 출신 趙甲女 춤꾼의 춤사위.



호흡 조절과 氣체조 10년

‘쭈구렁 밤송이 3년 간다’는 속담이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다지 건강이 좋지 않아 잔병치레를 많이 하며 살아왔다. 호흡기 계통과 소화기 계통이 약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러하듯 50살이 가까워지면서 나도 건강에 대해 신경을 쏟았고 양생법(養生法)을 찾기 시작했다. 담배가 건강의 적인 줄은 알고 있으나 그걸 끊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

60이 가까워지더니 양방에서는 디스크요, 한방에서는 좌골신경통이라는 아무 몸쓸 병에 걸려 허벅지와 장딴지가 당겨 걸음을 잘 걷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수술만 빼어놓고는 양·한방간의 좋다는 약과 틀림없이 낫는다는

물리요법을 다 써 봤으나 허사였다.

몇년을 그렇게 앓다가 우연한 기회에 조선조 마지막 도인(道人)의 손자라는 분을 알게 되었다. 가까이 지내게 된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내가 다리가 아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양생요법

고질병도 깨끗이... 나름의 건강법 매일 실천이 중요

(養生療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기초 몇 가지를 알려 줄 테니 평생을 거르지 않고 매일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나에게 다짐을 받으면서 끝을 보려면 죽을 때까지 하고, 열댓 동안 해보다 효과가 없다고 그만 두려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



황대연

- 본회 논설위원
- 매일신문 편집위원
- 일본경제 서울특파원

다.

그는 할아버지에게서 체계적으로 양생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어려서

나는 그에게 다짐을 했기에 그의 가르침을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약했던 고질적인 병도 좋아졌고, 디스크인지 좌골신경통인지도 나왔다.

나의 건강 유지의 비결은 그의 가르침이다. 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술 냄새가 싱그러운 야산에 올라 맑은 공기로 호흡을 조절하고 굳어있던 몸을 푸는 기체조를 매일 같이 하는 것이다.

쭈구렁 밤송이가 돼서 지금까지 매달려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몰라도 내게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것을 보면 그래도 걸보기엔 건강해 보이는가 보다.

누구든 건강 유지의 방법은 다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을 터이니 그 방법을 거르지 말고 열심히 하면 건강은 유지된다고 본다.

할아버지가 묘한 운동을 하던 것이 곧 양생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기억을 더듬어 할아버지가 하던 숨고르기와 기(氣)체조를 정리하여 해 보고 있는데 괜찮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만 조금씩 알려 주고 있다고 했다.

요즘...



회 우 등 경

· 가나다순



· 박권흠(朴權欽)회우 (한국차인연합회장 겸 四溟堂 기념사업 회장)=4월 6일 밀양 표충사에서 유불(儒佛)공동제례로 열린 四溟堂추모 춘향제에 참석 추모사를 했다. 또 오는 5월 24~25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 경운동 雲峴宮에서 제 28회 '茶의 날' 기념행사로 팔도차문화 큰잔치를 연다.



· 여영무(呂永茂)회우 (뉴스앤팩플 대표)= 4월 15일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인 서울언론인클럽(회장 강승훈)이 수여하는 제 23회 언론상 '한길상'을 수상했다.



· 안평선(安平善)회우 (동아방송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 동아방송 개국 45주년을 맞아 4월 25일 한양대 동문회관 레스토랑 '빠리'에서 기념오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崔彰鳳 전 MBC사장(본회 명예회우) 등 동아방송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석, 옛정을 나누었다.



· 이경남(李敬南)회우 (한국발전연구원장)= 4월 18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宋復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총선 이후 이명박 정부가 해

야할 일'을 연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 이태영(李台永)회우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 21세기스포츠포럼 대표)= 4월 30일 한국전쟁 남북사건자료원이 주최한 '건국 60주년에 조명하는 6·25전쟁 남북자 인권문제' 주제의 월 정기포럼에 참석,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로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주제 발표는 정진석 외국어대 명예교수(본회 명예회우)가 맡았다.



· 제재형(諸宰馨)본회 명예회장(한국일보 사우회 운영위원)= 4월 11일 한국일보 창간사주 百想張基榮선생의 31주기를 맞아 박실 흥원기 한기호 박진열 본회 회우 등과 함께 경기 하남시 창우동 금단산 고인의 묘소를 참배했다.



· 지갑중(池甲鍾)회우 (유엔한국참전국협회장)= 영연방 4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6·25참전용사 153명의 방한을 맞아 4월 18~19일 옛 격전지 가평과 설마리에서 각각 기념식과 추도식을 거행했다. 참전용사들은 또 이 지역 중·고교생 123명에게 '혈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산악회 소식



여주 마감산서 춘계산행

본회 산악회 회우 32명 참석 성료

본회 산악회는 봄기운이 완연하던 지난 4월 1일 안종우 회장 취임 첫 춘계 산행을 여주 마감산에서 가졌다.

소나무 숲 오솔길과 산수유 등 봄꽃이 어우러진 이 날 산행에는 김재영, 지용우, 송두빈, 최의호 원로 회우 등 32명의 산우들이 참석, 솔내음과 봄꽃 향기 속에 하루를 만끽했으며 산행 뒤엔 여주온천에서의 온천욕과 여성생활사 박물관, 신록사 등을 돌아 봤다.

마감산은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평퍼짐한 육산이지만 산행내내 솔밭 숲길의 연속이어서 산림욕엔 최적의 산이란 인상을 받았다. 특히 이 산은 산행이 끝나는 지점에 여주 온천장까지 길게 뻗어있는(5.5km) 능선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맛이 그 만이다

한편 산우회 회우의 친목을 위해 본회 조창화 회장이 금일봉, 그리고 김재영, 안종우, 지용우, 강진형, 정운종 회우가 각각 찬조금을 냈다.

<알림> 5월 산행은 "대모산"입니다. 본회 산악회는 5월 산행을 대모산(높이 293m)으로 정했습니다. 일명 국수봉이라고도 불리는 나지막한 산으로 아침운동이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에 최적의 산입니다. 오는 5월 24일(토) 이곳으로 모입니다. 산을 즐기는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2008년 5월 24일(토) 오전 10시
· 집합장소=지하철 3호선 수서역 종점 (매포소 앞)
· 준비물=음료수 · 간단한 점심 지참
· 연락처=산악회 총무 011-443-0063
2008년 4월 29일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회장 안종우



순직 종군기자 추도식

한국전 종군기자동우회는 4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공원내 종군기자 추념비 앞에서 제 31회 한국전 순직종군기자 추도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본회 계성일 김영호 김진섭 문제안 정준모 지갑중 한영섭 회우와 기자회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인간애' 시상식

대한언론인회가 주관하는 '2008년 신문사진 인간애상' 시상식이 4월 7일 신문의 날을 맞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을호암상 수상자 5명 선정

호암(湖巖)재단 (이사장 이현재 · 전 국무총리)은 4월 14일 제18회 호암상 수상자로 ▲과학상 김필립(金必立 · 40 · 미 컬럼비아대 교수) ▲공학상 승현준(承現峻 · 41 · 미 MIT 교수) ▲의학

상 찰스 리(39 · 미 하버드대 교수) ▲예술상 우규승(禹圭圭 · 67 · 건축가)씨 ▲사회봉사상 성가복지병원(대표 김복기 수녀) 등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상식은 6월 3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부문별로 각각 2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김지영 동아일보 기자

임승준자유언론상 수상



대한언론인회(회장 조창화)와 임승준자유언론상기금(이사장 손장순)은 조갑제(趙甲濟 · 사진 위) 전 월간 조선 편집장 겸 대표이사(논설 논평부문)와 김지영(金志映 · 사진 아래)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문학취재부문)에 대한 제3회 '임승준 자유언론상' 시상식을 4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조갑제씨는 그 동안 조갑제닷컴과 활발한 시국강연 및 각종 저서를 통해 확고한 국가정체성 확립과 좌파정권 퇴진을 줄기차게 역설하는 등 자유언론 창달에 공이 많았고, 김지영 기자는 동아일보에 '문학이 일상을 만날 때'라는 기명 칼럼을 연재, 독자들에게 문학의 즐거움을 환기시킨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발전기금 감사합니다

· 최금녀 회우 : 50만원



■ 회비 내신 회우

· 2008년분

고귀남 고수균 박수경 구본건 금창태 박문두 김두근 김상현 김석성 김용구 김용수 김원달 김재봉 김정훈 김종하 김창구 김한영 김 현 문준철 박미정 박영래 박용운 박정진 박채규 서강화 서진섭 안종화 송정제 양 영 엄종석 유승택 유일연 유창순 윤석웅 (09년) 윤주영 이대영 이문홍 이배국 이상근 이은명 이태영 이채주 이형균 임현태 장덕상 장석훈 정기백 정용석 정재호 정태연 조관희 조성하 최선록 한기호 한태열 호천웅 홍성혁 황선용 황순중 정문식

· 2007년분

김재봉 박문두(05, 06년 포함) 유일연 (06년 포함) 이은명 황순중(06년 포함)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본 회 日誌 (4월)

- 4일 = 제 52회 신문의 날
- 7일 = 08년도 인간애상 시상
- 17일 = 봄 야외 수련회
- 25일 = 종군기자 추모 행사
- 28일 = 제 3회 임승준 언론상 시상

♣ 주소·전화 바뀌었습니다

- 현원복 = 충남 천안시 불당동 767 대원칸타빌 A. 602-403 ☎ 018-294-2807
- 김지용 =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36-2 성동상가A. 508호
- 김남술 = ☎ 031-984-7616, 010-7602-7676

생활을 지키는 보험

프로미라이프



손보업계 최초 2007년 하반기
CCMS 인증기업 선정
(인증기간: 2008.1.1 ~ 2009.12.31)

프로미(Promy)는 'Promise(약속)'를 줄인 말로,
고객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동부화재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부화재
www.idongbu.com

“자식에게 짐 되지 말아야지”

어느새 내 몸뚱이도 60년이 넘으니까

여기저기 고장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더 아프기 전에

몸 생각하고 준비도 해야겠더라구.

그때 가서 애들한테 손 벌릴 순 없잖아.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려니까 나이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

그때, **동부화재 룡런인생보험**을 만났어.

이젠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할 필요없이,

내 남은 인생을 즐겨야지

당신의 멋진 인생, 룡~런 할 수 있도록!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동부화재 룡~런인생보험 0801

70세에도 가입할 수 있는 동부화재 룡런인생보험으로 다양한 보장과
상조회사와 연계되는 장례제휴·간병사소개서비스 등 든든한 노후를 예약하세요

■오래오래 즐거운 인생을 위한 맞춤 서비스

- 나이 때문에 가입이 힘든 분을 위해 가입연령 확대(질병사망담보 가입연령 만70세)
- 고객 특성에 맞춘 45세 이상의 중년을(WINE세대) 위한 차별화된 보장플랜(White5580 / Red6080)
- 시청각질환수술비, 인공관절수술비 등 중·장년층 고객을 위한 보장강화

■아름다운 황혼을 위한 특별 서비스

- YWCA의 전국망을 이용한 간병사소개서비스
- (주)효원라이프 상조의 장례토털서비스를 통한 장례제휴서비스
(08년 1월 현재 제휴 중)

* WINE세대란? 45~64세의 삶에 적극적이며 소비욕구가 강한 세대를 말합니다

고객상담센터 1588-0100





나눔의 기쁨은 높은음자리입니다

음악만 있어도 행복할텐데
그 앞에 다시 '행복' 이 붙은 학교가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기회를 갖지 못했던 친구들과
가르침의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함께
음악을 통해 기회를 나누는 학교-
바로 SK텔레콤의 '해피뮤직스쿨' 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눔이지만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나누면
반올림 되어 돌아오는 행복,

사람을 향한 행복연주는
아마도 높은음자리인가 봅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 telecom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국

SK텔레콤 해피뮤직스쿨 SK텔레콤과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음악을 배울 기회가 부족했던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 영재를 발굴하여 이들을 세계적인 연주자로 키워내고자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 **첼리스트 송영훈** 해피뮤직스쿨의 음악 감독으로서, 2001년 대통령상 수상, 2002년 한국의 문화대사로 임명된 한국 클래식을 아끼어가는 대표적인 음악가
※ 송영훈씨는 본 광고의 모델료를 '해피뮤직스쿨'에 기부하였습니다